

“불화에는 조상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재가연대서 특강

참여불교재가연대는 3월 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정우택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불화로 읽는 불교이야기'를 강연했다. 정우택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불화에서 종교를 통해 인간이 얻고자하는 신념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인간이 지은 업에 따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윤회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화에는 생로병사가 담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태어나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관직에 몸담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누리다 늙어서 죽게 됩니다. 불화에는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화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거나 마차 바퀴에 깔리거나, 낙사를 당하거나 노안이 들거나, 심지어 싸우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을 읽기도 하고 설법을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불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에 가면 다양한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림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면 글자도 불교를 아는 것 보다 훨씬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얼굴을 보고도 파

연 이 부처가 어떤 부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나뉘고 장신구를 걸치지 않은 형상은 '부처' 또는 '여래승'이라고 합니다. 관을 쓰고 뒤에 광배가 있으며, 장신구를 많이 걸친 부처의 형상은 '보살상'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김새가 다르듯, 이 두 부처도 같은 부처가 아닙니다. 때문에 성격도 다릅니다.

인간의 염원이 만들어 낸 부처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는 석가모니부처입니다. 석가모니부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끝없는 집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은 자기 뜻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소산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긴 것이 경전입니다. 경전은 부처님 재세 시 만들어진 경전과 열반 후에 만들어진 경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전의 말들은 모두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부분 대웅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극히 일부에서 부처님 아래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두 동물은 바로 코끼리와 사자입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분은 문수보살이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은 보현보살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부처와 보살을 만들어냈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사여래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여래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사여래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약사여래는 손에 약호·약기·약함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관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태양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 관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광보살·월광보살이라 부릅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어두운 곳을 밝혀 주며 평등심·구원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손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주로 보광전, 비로전, 적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약사여래와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 현세를 의미를 부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를 궁극해 합니다. 미륵은 미래를 구원하기 위해 생겨난 부처입니다. 미륵은 두 가지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솔전에 계시는 때는 보살의 모습이지만, 땅에 내려오면 석가의 모습입니다. 미륵은 앉은 모습이 결가부좌가 아닌 걸터앉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난세를 상징하는 부처 중에는 치성광여래가 있습니다. 치성광은 북극성을 뜻합니다. 보통 치성광여래 그림은 도교적 성격이 짙게 나타납니다. 도교에서는 별자리를 의인화 시켰는데, 하늘이 인간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보살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재물을 주고 극락으로 인도해 줍니다.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은 매우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관세음보살은 공덕이 굉장하 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 외에



정우택 교수는 불화는 특정 종교를 떠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밝혔다.

인간 집착으로 부처·보살 구분 그림 파악하면 불교 쉬워져 불화는 인간의 내세까지 담아 현세를 다시 되돌아 보게해

다른 모습을 한 관음을 변화관음이라고 말합니다. 관음 중에는 천수천안이 있습니다. 손이 천개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단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많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모든 곳에 손을 뻗어서 구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1550년대에 그려진 '관음탱'은 인종이 죽자, 인종의 부인이 인종을 극락에 모시고 싶어 제작한 그림입니다. 지금은 교토 지원이라는 절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32가지의 몸으로 변해 중생을 구원하는 관음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그림에서 관세음보살은 비구니, 아가, 야차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현세를 되돌아보게 해

모든 종교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음 생으로 현상이 이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않는 종교는 성립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는 내세를 말할까요. 현실에서 고통을 받아 종교를 믿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다지 나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때 지금 쌓아온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극락세계입니다. 그곳을 만들지 않으면 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부처입니다.

아미타부처는 인간이 죽기 직전 나타나 십니다. 불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미타부처는 엄지와 중지를 동그렇게 맞닿은 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서 있습니다. 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보통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아미타부처와 많은 보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좌를 들고 나타납니다. 현세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많은 보석이 박힌 대좌를 들고 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자에게는 다른 이와 물질로도 구분합니다.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승려나 귀족들이 아미타부처를 그려놓고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더 많은 중생들을 극락으로 태워주기 위해 그림에 배를 등장시켰습니다. 즉, 나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입니다. 이 배를 반야운선이라 불렀는데, 배에 머리 쪽이 용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선악을 구분 짓기 위해 나쁜 것을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화에는 나쁜 것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

불화는 단순히 불교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적 가치가 담겨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화는 고려시대에 어떤 약기가 연주됐고, 산수와 조상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에서 고대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는 특정적 종교를 떠나 우리가 앞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모르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긴 탁자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쉽게 '최후의 만찬'을 떠올립니다. 이는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곧 교육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화의 가치와 선조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바랍니다.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서,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제1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제 14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14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등상불(等像佛)과 무상불(無相佛)	제한 없음	-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일정 : 접수 마 감 - 2012년 5월 18일(금)
당선작 발표 - 2012년 6월 22일(금)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2년 12월 13일(목) 예정
▶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6편 (편당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정수현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525-0751

대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